

사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업적은 천 추 만 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겨레의 절절한 그리움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해만 가고있다.

절세위인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추모의 열기가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이 시각 우리 겨레는 불타는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령도력과 숭고한 덕망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의 길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의 대성인인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통일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앞당겨 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멸불후의 로고를 바쳐 오셨었다.

언제나 자신께서는 어린시절 38°선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분렬의 장벽을 일시적인것으로 생각하였지 영원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돌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하나가 된 강토에서 자주적인 삶을 누리며 확고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잡고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일군들에게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예지로 언제나 조국통일운동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정경,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혈맥을 이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

일위업실현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온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들을 마련하여주시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두고 언제나 마음씨오신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차례나 판문점을 찾으시어 나는 이곳에 오면 하루빨리 분계선을 없애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굳어진다. 그래서 나는 분계선지구에 나올 때마다 판문점에 들리곤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철폐비담에서 오래도록 결심을 멈추시고 수령님의 뜻대로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실 굳은 결심을 천명하시었다.

언제나 외국어 외국의 한 언론사대 표단이 그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가고 질문을 드리었을 때에도 자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시간을 낭비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절절히 심중을 터놓으시기도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한평생을 바쳐오셨었다.

불타는 애국헌신의 열기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통일을 위한 로고의 낮과 밤, 날과 달들을 이어 오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력사적인 6.15통일시대를 열쳐놓으시으로써 반공과 질서, 대결과 불신이 지배하던 이 땅위에 민족적화해와 단

합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시고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중대 조치들을 취하시어 민족의 통일열기를 끊임없이 고조시키시고 강력한 군력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을 짓부서버리시며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고 겨레의 자주통일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떠밀어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이다.

따뜻한 인정미와 하늘같은 덕망으로 남녘의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 동포들과 허물없이 만나시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고귀한 가르치심과 명쾌한 해답을 주시던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참으로 조국과 겨레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확고한 자주통일의지와 애국애족의 내용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통일령도업적은 세월과 더불어 길이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의 고귀한 한생이 어려웠는 애국애족위업을 빛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드림없는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민족자주위업은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적자질, 강철의 단력과 담대한 배짱, 교묘한 덕망과 자애로운 인덕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이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위업을 그대로 이어서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로 겨레의 자주통일성업을 승리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내놓으신 과학적이며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사상과 방침들, 지칠줄 모르는 정력적인 령도는 내외반통일분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운동이 승리로 전진할수 있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지난 9월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고결한 민족애와 확고한 자주통일의지를 담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운동의 앞길을 다스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 어떤 풍파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민족의 숙망인 조국통일을 이룩할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넓은 도량과 숭고한 민족애로 겨레의 자주통일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것이야말로 조선민족의 돌도 없는 행운이며 무상의 영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민족의 자주와 존엄도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도 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실현도 있다.

온 겨레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의 령도따라 민족의 강성부흥과 통일변명을 위한 애국위업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고 이 땅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장군님의 위업을 꽃피워가시며

제야의 종소리와 더불어 희망과 축복으로 시작되었던 이해를 어느덧 마감짓는 12월의 이 시각 걸어온 길, 홀려간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인민이 터치는 그리움의 토로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의 자랑스런 현실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이 말을 조용히 외워 불수록 몇해전 삼지연시를 찾았시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되새겨진다.

윤기시던 결을 울 거름 멈추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등 상을 보고 또 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던 경애하는 그의 갈리신 음성.

우리 장군님께서 보시었으면!

이 세상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뜨겁게 맥박쳐호

르는 그의 말씀이었다.

진정 그리하였다. 어디를 찾으시어도 무엇을 하나 구상하시고 일떠세우시어도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그의의 념원을 이 땅위에 하나하나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지금도 불꽃은 려명거리리를 바라보면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새로 일떠설 때마다 우리 인민들이 문명화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만족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말씀이 금시 들려오는듯싶고 원산군민발천소년대에 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지수지를 보시었다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었겠는가고 하시던 그의 모습이 어른다.

찾으시는 곳,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시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고 눈부신 새 거리의 공장들,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을 일떠세워주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정의 세계를 어찌 말이나 글로써 다 전할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이 땅의 모든 기적과 전변의 력사는 이렇게 태어났다.

본사기자 김영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한생이 어린 공화국을 더욱 빛내여가실 불타는 열망,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인민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철주야로 헤쳐가시는 위대한 헌신의 위대한 장경과 더불어 주체조선의 국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가는 곳마다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끊없이 울려 퍼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인민의 그리움이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이 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오늘의 력사적진군길에서 더 큰 기적적승리와 영광을 안아올 찬란의 심장들의 불타는 맹세가 그대로 그리움의 노래가 되어 이 땅에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영원한 그리움에 불타는 우리 심장 어버이 유훈시켜 당중앙 받들리라 장군님 천만년 모시고 총정을 바칠 맹세 오늘도 순결한 그리움 아 끓이 없네

시 천년이 흘러도 만년이 흐를대로

유현의

이 나라 인민들 경모의 꽃 피워드린 10년 배푸신 사랑 노래로 울려피지고 이루신 업적 전설처럼 전해져 장군님 우리와 함께 계신 10년이어

세월의 흐름따라 흘러온 10년이었으랴 장군님과 맺은 혈연의 정 단발머리 내대학생이 어머니 되고 그날의 철부지가 어엿한 청년이 된 세월 단 하루도 어버이장군님 우리 마음속에 아니계신 날 없는 세월이어

장군님의 뜻, 장군님의 의지로 이 조선을 이끄시는 그이 계시기에 추억이 아니라 장군님의 생애는 장군님의 영생의 승결은 내 조국의 맥동으로 거세게 뚫리고있어라

장군님 한평생 제일로 사랑하신 인민 그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강대한 힘으로 지켜주시고 열렬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원수님 오, 그의 모습에서 인민은 본다 장군님 태양의 그 영상을

그렇다, 이 땅에 흐른 10년세월은 장군님 우리의 마음에 더 가까이 오신 10년 오시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함없는 사랑과 정을 주신 10년 장군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천년바위처럼 굳건해진 10년

지나온 그 10년처럼 이 땅의 해와 달은 언제나 장군님과 함께 흐르고 흐르리라 장군님 영원한 어버이로 길이 모시고 인민은 그의와 한식술로 변함없이 살려니 천년이 흘러도 만년이 흐른대도 오, 장군님은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



삼지연시의 밤

다시 열어주신 배길

하게 웃으셨었다.

그리고는 저이기 신중하신 어조로 문제는 어떤 립장을 가지고 회담에 립하는가 하는것이다. 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키고 귀국사업자들은 이 소식을 감각의 눈물속에 받아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으며 세계는 이 경이적인 사실앞에 또 한번 흠뻑이 젖었다.

이 자랑스러운 성과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비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개를 위한 조일정부간 회담 조선대표단 단장의 사업을 맡아하는 일군을 통가까지 불러주시었다.

일군은 장군님께 조일직접사회담진행정형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면서 일본측이 부당한 주장을 집요하게 고집하고있는 조건에서 조만해서는 회담을 성사시키기 어려울것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아예 심신을 잃은것이 아닌가고 물으시며 호랑

나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살며 일하기때문에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수령님의 품이 얼마나 그리운가 하는것을 잘 모를수 있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담을 빨리 성사시키고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고싶어하는 재일동포들의 소원을 풀어주자고 간곡하게 이르시었다.

참으로 재일동포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동포애의 정은 슬하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쏟는 친어버이의 심정 그대로였다.

그후 재일동포들의 귀국제개를 위한 조일직접사회담은 비할바없

이 활기를 띠었다.

우리측은 회담을 지연, 파탄시키려는 일본측의 책동을 분쇄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왔다.

회담의 주도권은 우리측에 있었다.

한편 총련에서는 동포대중을 발동시켜 항의투쟁을 벌리면서 귀국의 배길을 영영 끊어버리려는 안팎의 반동들의 책동을 거름 폭로 규탄하고 일본당국에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제개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하였다.

드디어 일본당국은 궁지에 몰리고 우리측의 요구와 세계여론을 더는 거역할수 없게 되었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을 재개할데 대한 회담문건에 도장을 누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본사기자



제168차로 귀국의 배길에 오른 재일동포들